

31

#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8~2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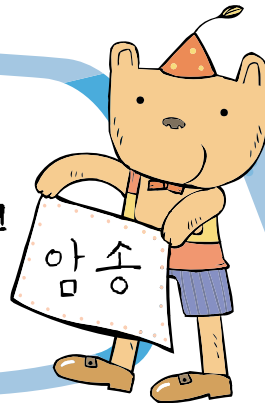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바로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26)



31

거기서 더 가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아버지를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외에도 세리인 마태, 빌립 등 총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기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 오늘의 공부

##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1.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나를 따라 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     )

- ① 예수님 잠깐만요! 오늘 잡은 고기만 팔고 따르면 안될까요?
- ② 전 고기 잡는 것이 너무 좋아서 따라갈 수 없어요.
- ③ 네,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2.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그림 보고 적어보세요.



3.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셨나요?



-----

-----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19)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래 내용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을 당했어요.

?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글로 써 보세요.

Three empty dashed boxes for drawing, connected by arrows, with corresponding yellow brushstroke areas below them.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서 16)



## 알아볼까요

###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였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sup>1)</sup>순교하였습니다.

- 베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함.
- 야고보** 예루살렘과 유대에 전도를 했으며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함.
- 요한**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전도를 했으며, 밧모 섬에 갇힌 후 풀려났음.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으며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음.
- 안드레** 스구디아, 헬라, 소아시아에 전도했으며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순교함.
- 빌립** 부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함.
-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함.
- 도마**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함.
- 마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도 후 순교함.
- 야고보** 블레셋과 에굽에서 전도하다가 에굽에서 순교함.
- 유다** 앓수르와 바사에서 전도하다가 바사에서 순교함.
- 시몬** 십자가에 못박혀 순교함.

<sup>1)</sup>순교: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 예 화

## 주업과 부업

선교사를 모집하던 한 선교 단체에서 많은 신청자 중에 한 구두 수선공의 명단이 들어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훈련받은 목사와 전도사들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구두 수선공이란 직업은 자격에 전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간에 그의 직업을 직접 물어 보았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의 직업은 그리스도인이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sup>1)</sup>주업은 그리스도인이며 <sup>2)</sup>부업은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회사원, 상인, 주부, 학생 등 많은 세상의 직업은 단지 우리의 부업일 뿐입니다.

<sup>1)</sup>주업: 생활의 중심이 되는 직업이나 사업.

<sup>2)</sup>부업: 주업 이외에 하는 일.

부모님  
난

선생님  
난